

# “역사상 가장 큰 변화” KIA,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변했다

### 외국인 감독 선임, 초반부터 소신과 의지로 무장 강도 높은 조직개편...“우리모두 7위” 통렬한 반성

“구단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이지 않을까 싶다.”

맷 윌리엄스 KIA 타이거즈 신임 사령탑 취임식에서 만난 KIA 관계자는 이같이 말하며 최근 KIA에 불고 있는 변화를 설명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뀌었다는 게 핵심이다. 선수들 또한 이 변화의 바람에 동참할 전망이다.

5일 광주광역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대강당. 이날 KIA는 지난 15일 선임한 윌리엄스 감독의 공식취임식을 가졌다. 구단 제9대 감독이자 사상 첫 외국인 사령탑인 윌리엄스 감독은 선임 직후 입국해 지난 3주 동안 합평에서 마무리캠프를 진두지휘했다. 메이저리그 스타플레이어 출신에 다 지도자로서도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윌리엄스 감독은 캠프 첫날부터 강력한 카리스마와 소신으로 구단 안팎 사람들을 사로잡은 상황이다. 훈련 내용은 물론 발언 하나하나가 화제를 모았고 그중에는 고개를 끄덕일 정도의 놀라운 통찰력도 돋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KIA 사령탑으로서 처음으로 모든 선수단 및 구단직원 앞에 선 윌리엄스 감독은

취임일성으로 “우승을 위한 도전을 시작하자. 야구에서 완벽이란 불가능하지만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 모두 하루하루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수들의 가능성을 봤다고 희망적 메시지를 남기더니 “스프링캠프 첫날부터 승리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인 힘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선수들 뿐만 아니라 코칭스태프를 향해서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빼놓는 한마디를 남겼다.

윌리엄스 감독은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선수들의 열정이 인상깊었다”고 소감을 전하며 “선수들이 스스로를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외국인선수 영입 등에 관해서는 자신의 해외네트워크가 장점이 될 것이라며 교감을 나누는 중이라고 설명했고 짧은 기간,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크게 매료됐다고 말했다. 호랑이가 상징인 팀에 카리스마와 진정성으로 무장한 진짜 ‘호랑이 사령탑’이 등장했다.

성대한 취임식은 그만큼 KIA 구단의 기대가 크다는 뜻. 관계자

들은 입을 모아 “윌리엄스 감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설레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구단이 희망한 체질개선은 물론, 다시 한번 전통의 명가로서 자존심을 되살려 줄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으며 임지를 차켜세웠다.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알찬 취임식을 준비한 구단 관계자들 얼굴에는 힘든 기색보다 뿌듯함이 차올랐다.

새 사령탑과 함께 KIA는 구단 자체가 큰 변화를 맞이했다. 올 시즌 7위 추락, 감독 중도사퇴, 관중감소 등 자존심에 크게 상처가 생겼다고 진단한 KIA. 이화원 대표이사는 윌리엄스 감독에 대한 환영사에 앞서 “올해 팬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겼다”며 모두를 숙연하게 만드는 반성부터 했다.

KIA 구단은 최근 1·2군 통합 관리를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일린 상태. 육성, 운영, 스카우트, 마케팅, 홍보 등 기존 부서를 더 세분화하고 체계적으로 재편하며 인적변화도 단행했다. 수익성 개선, 데이터 시스템 강화, 팬 서비스 강화 등 여러 파트에서 보다 혁신적인 개혁을 진



KIA 타이거즈 최형우(왼쪽부터), 조계현 단장, 맷 윌리엄스 신임 감독, 이화원 대표이사가 5일 오후 광주 서구 KIA자동차 광주공장 대강당에서 열린 감독 취임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행했다. 일반팬에 공개된 것 이상으로 이번 KIA의 조직개편은 크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KIA 관계자들이 “역대 가장 큰 변화”라고 혀를 내두른 이유다.

물론 야구는 결국 선수들이 하는 것. 이번 예사롭지 않은 안팎의 변화에 선수들도 베테랑, 신인 구분 없이 위기감과 책임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이날 선수 대표로

나선 간판타자 최형우는 “다들 새롭게 출발하자는 마음”이라며 “베테랑과 어린 선수들 모두 다시 출발점에 섰다고 생각한다. 저도 내년엔 못 하면 안 좋게 된다.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며 비장한 표정으로 책임감을 강조했다.

2년 전 통합우승에 성공하며 명가의 자존심을 다시 세운 KIA는 지난해 9위, 올해 7위로 떨어

졌다. 이 과정에서 팀이 기대한 ‘지속 가능한 강팀’이 되는 것에 실패했다. 7위를 한 선수단은 물론, 구단 관계자들 모두 “우리 구단 모두가 결국 7위만큼의 능력밖에 못 보여준 것”이라며 통렬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무너진 명가 KIA가 큰 변화 속 다시 한번 출발대에 섰다.

## SI “다저스, 류현진 놓치면 안 돼...콜로라도는 몸값 감당 못해”



“다저스 류현진을 놓치면 안 된다.”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스포츠일러스테이트(SI)는 6일(한국시간) 각 메이저리그 구단이 오프시즌 반드시 잡아야 할 자유계약선수

(FA) 명단을 공개했다. 다저스가 잡아야 할 선수는 류현진(32)이라고 분석했다. SI는 “다저스는 류현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류현진은 건강할 때는 항상 좋은 투수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시즌 류현진은 29번 선발 등판해 180이닝 이상을 던졌다. 류현진이 180이닝 이상을 투구한 것은 루키시즌이던 2013년 이후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SI는 “워커 볼러, 클레이튼 커쇼, 류현진으로 이어지는 선발진은 볼펜의 약점을 가리기에 충분하

다”고 전했다.

다저스의에도 선발투수보장이 필요한 구단에서는 류현진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했다.

콜로라도 로키스에 대해서 매체는 “땅볼 유도 능력이 높은 상위 12명의 선수 중 브렛 앤더슨, 류현진, 웨이드 마일리 등이 FA다. 콜로라도가 그중 한두 명을 선발진에 데랄 수 있다면 쿠어스필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콜로라도는 류현진의 몸값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 이강인 생애 첫 UCL 선발...발렌시아, 릴에 4-1 역전승

이강인(18)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무대에서 생애 처음으로 선발 출전해 팀의 역전승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발렌시아는 6일 오전 5시(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발렌시아의 메스타야 스타디움에서 열린 UCL 조별리그 H조 4차전 프랑스 릴과의 홈 경기에서 후반에만 4골을 몰아치며 4-1로 역전승했다.

이강인은 이날 UCL에서 생애 첫 선발로 나서 제프리 콘도그비아, 다니 파레호와 함께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했다.

전반 25분 중앙에서 차단된 패스가 발렌시아 수비 뒷공간으로 떨어졌고 이를 릴의 빅터 오시멘이 폭발적인 스피드를 선보이며 따낸 뒤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앞서갔다.

이강인은 전반 35분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헤딩슛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고 말았다.

이강인은 후반 9분 마누 바에호와 교체 아웃됐고 후반 들어 만회골을 위해 경기를 주도했던 발렌시아가 후반 20분 얻은 페널티킥

기회에서 파레호가 파네키킥을 선보이며 골을 기록 동점을 만들었다.

발렌시아는 이어 후반 31분 호세 가야가 수비 실수를 틈타 왼쪽 측면을 허문 뒤 땅볼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 공이 릴의 수마오로 발에 맞고 그대로 골문으로 들어가 역전에 성공했다.

역전에 성공한 발렌시아는 곧바로 콘도그비아가 환상적인 왼발 중거리슛을 선보이며 3-1로 달아났다. 이어 후반 막판 페란 토레스의 골까지 터지며 완승을 했다.



**화순군**  
HWASUN-GUN



- 임대정원림
- 연둔숲정자
- 김삿갓동산
- 오지호 기념관
- 조광조유배지
- 고인돌유적지
- 운주사

**BUS TOUR**

##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음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자→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음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